불자 세상보기

가을의 가장 큰 날… 모두의 축제로



문윤정
수필가 · 여행작가

아침저녁으로 부는 소슬바람에 기운이 난다. 밤낮없이 우렁차게 울어대던 매미소리도 그치고, 밤이면 귀뚜라미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마음은 벌써 가을의 우수에 젖는다.

동산 선사에게 한 제자가 "추운 겨울이 올 때는 또 더운 여름이 올 때는 그것을 피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다. 동산 스님은 "추울 때는 얼음물에 뛰어들고, 더울 때는 뜨거운 물속으로 뛰어들면 될 것"이라고 했다. 추울 때는 추운 곳으로, 더울 때는 더운 곳으로 가란다. 인생사는 물론이고 더위마저 정면 돌파하라는 가르침이다. 나는 한 여름이나 한겨울에 선사의 말을 읊으면서 더위와 한기를 이겨냈고, 삶이 힘들 때마다 선사의 말을 되새겼다. 하지만 108년만의 더위 앞에 이 말은 무색했다.

108년만의 폭염 앞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본 더위 앞에 머리마저 안개가 낀 듯 흐릿할 정도였다. 서민들은 비싼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마저 함부로 틀 수 없었다. 비싼 전기료도 서민들의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었다. 과실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당을 축적해야 하는 제 할 일을 하지 못했고, 사과도 화상을 입어 짓물러버렸다. 이제 온 산하를 뜨겁게 달구었던 폭염이 슬그머니 물러섰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것은 만고의 진리. 시간이 가면 더위도 물러서겠지, 가을이 오겠지 하면서 시간에 기대어 여름을 견디었다. 이런 폭염을 보내고 맞이하는 한가위라 예사롭지 않다.

곧 팔월 한가위다. 한가위는 가을의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이니, 가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날이다. 너른 들판은 황금물결을 이루고 오곡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가을은 분명 축복의 계절이다. 부모와 친지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먼저 달려간다.

부처님은 '친족이 없는 것은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와 같다' 고 했다. 우리는 일가친척을 만나러 가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서로 보듬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 인생에 그리 많지 않다.

올 추석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어보자. 귀찮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사다가 차례상에 올리기도 하는데, 송편 빚기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흥겨운 축제로 만들어보자. 축제가 별것인가? 송편을 빚으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노래 가락이 척 걸쳐지고, 입

"나와 친지 소망 발원한다면
내 마음도 보름달같이 넉넉할 터"

담 좋은 사람이 풀어내는 만담이 있으면 축제가 되지 않는가. 송편 소와 함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와 끈끈한 정까지 담아 빚어낸 그 송편은 한동안 기쁨의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명절 때 마다 터져 나오는 노동에 대한 며느리들의 불만도 이참에 해소해버리자. 남정네들이 소매 걷어붙이고 앞치마 두르고 부침개를 구워보자. 모양이 좀 이지러지면 어떤가? 한가위는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오곡과 과일이 풍성한 계절에 맞이하는 한가위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만든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인생이 별거냐면서 웃음을 잃지 말고 살자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것도 한가위의 미덕이다.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투정을 부려도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요 친지들이다.

한가위의 결정판은 보름달이다. 짙푸른 밤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옛사람들은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보름달 앞에서 소원을 빌었다. 온 가족이 은백색의 달빛을 밟으면서 마실 나들이를 갈 수는 없어도 보름달 앞에서 소망을 빌어보자. 나의 소망도 빌고 가족 친지들의 소망을 기원한다면 내 마음 또한 보름달같이 넉넉해지지 않을까.

한가위의 기쁨을 옛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표현했다. 도회생활에서 이리저리 다친 마음을 서로가 다독여 주면서 이왕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축제로 만들자.

특별 기고

2600년 前 '고오타마 불교' 로 돌아갈 때



황경환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얼마 전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각 스님이 한국불교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 이유로 유교적 관습, 남녀 국적 차별, 형식주의, 스님과 신도의 차별 등을 들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외국 스님들은 장식품(데커레이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 불교의 기복신앙의 맹점, 금전과의 고리사슬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자 문화일보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께서 10년 내에 한국불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뜻으로 위에서 언급한 눈 푸른 납자의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홍 스님은 승가는 "부처님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신자들에 대해선 불교의 최대 강점인 수행 종교로의 변화를 제기했다. 사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독일 쾰른 숲의 페트노이야르는 독일 지식인들로부터 거지 성자로 존경받는 불교수행자다. 그는 2003년 어느 기고문서 이렇게 적었다.

"교단이 비대해감에 따라 허례허식이 생겨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서 불교 성직자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평신도들의 믿음과 무지를 이용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의식을 집전케 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여섯 감각의 호사를 누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기만을 일삼으면서도 그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과보는 살아생전에 안 받더라도 적어도 죽은 다음에 삼계 육도의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초기불교서 삼보(三寶, 불 · 법 · 승: 佛, 法, 僧)가운데 승보는 사문들의 집단 공동체인 승가(僧伽)를 말하며, 사문이란 사쌍팔배(四雙八輩;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道)와 과(果)를 성취해 성현의 계위에 오른 성자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미린다왕하(미란타 왕문경)라는 기원전 150년경에 쓰인 초기불교 담론서(미얀마에서는 이를 소부경전에 포함)의 귀경게(歸敬偈)에서는 승보에 대한 예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 '계율행의 공덕을 갖추고 네 가지 과위(果位)에 이르며 무상의 복전(福田)이 되는 성스러운 승가(僧伽)에 귀의 합니다' 라고 말이다.

불교의 최고 목표는 깨달음이고 열반이다. 무지(無知)와 갈애(渴愛)로부터의 해탈이고, 재생(再生)의 연속인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의 완성을 열반 또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깨달음' 이란 무엇이며, '신심(信心)' 은 무엇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용맹정진' 은 무엇이며, 다시 말해 교학체계(온 · 처 · 계 · 근 · 제 · 연)와 실참수행 체계(37보리분법)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교학 체계와 실참수행 체계의 토대가 될 때 깨달음이라는 피안의 목적지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 외에 또 다른 열반과 깨달음을 향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오타마 붓다의 불교는 아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이제 우리는 2600여 년 전의 고오타마 불교로 돌아가야 한다.

고오타마 불교는 21세기 과학이 지향하는 과학의 불교다. 분명한 교학체계와 그 교학체계를 바탕으로 한 실참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오타마 붓다가 가르쳐준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가는 만큼 자신에게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행복과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주제별로 설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상윳따니까야〉 제17.2 낚싯바늘경의 내용서 "수행승이 이익과 존경과 명성에 집착하면 그 수행승은 마라가 던진 낚싯바늘을 삼켰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익과 존경과 명성은 두렵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그것은 유가안은(瑜伽安隱)을 얻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했다. 결국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갖 폐단이 생긴다.

社說

사찰차례 확대, 포교 기회로 삼자

최근 명절 풍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민족의 추석 나기는 짧고, 가깝고, 실속 있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해 왔다. 귀성객들의 고향 체류 기간은 1박 2일을 가장 선호했다. 반면 3박 4일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와 비례해 확대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찰 합동차례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2013년 846가구에서 2014년 905가구, 2015년 955가구로 증가했다. 강남 봉은사는 2013년 1055가구에서 2014년 1145가구, 2015년 1172가구로 꾸준히 늘었다. 2부제에서 3부제로 시간을 확대한 사찰들도 적지 않다. 사찰 합동차례가 확대되는 이유는 편리성과 더불어 저렴한 비용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사찰 차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히 편의성 증대에만 사찰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차례 대행업에만 집중했을 경우 차례 문화 쇠퇴와 더불어 외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과 친지, 이웃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다문화가족, 이산가족,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거나 통일발원기도 등 민족 명절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기도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농경과 유교문화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유지하는 불교가 세시풍속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시풍속에 대한 보존과 노력은 국민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포교가 될 것은 분명하다. 시대의 조류를 읽고 이를 불교 발전과 포교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국민 공감이 필수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람료 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불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크다. 관람료 징수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9조다.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징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징수 장소나 방식, 금액 등이 징수자의 자율에 있는 것이다. 종단 내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사실상 사찰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찰은 탐방객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금액과 징수 당위성을 갖지만 어떤 사찰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관람료를 내는 탐방객을 비롯한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처 신고 또한 다시 도입돼야 한다. 1990년대에 규제 철폐란 명분으로 사용처 신고제도가 사라진 이후 징수 명분은 더욱 사라졌다.

불교계는 국민들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불교에 대한 국민여론, 신뢰만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먼저 문화재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을 관광객들이 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불교계가 기울였는지 반문하고 싶다.

징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로는 규정을 새로 다듬고, 관람료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충분한 국민 이해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존은 불교계 뿐만 아닌 국민 모두의 일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지닌다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은 징수가 아닌 기부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8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